

드루킹 · 김경수 누가 거짓말하나.. “자꾸 말 바꿀수록 타격”

김경수 “드루킹 일방적이었다”에서 “인사추천 전달” 드루킹 “보수세력이 한 것처럼 꾸미려” 진술 등 반복

드루킹 댓글조작 사태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김도(40·필명 드루킹)씨의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다.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말을 번복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면서 누가 거짓 증언을 하느냐에 관심이 모인다.

김 의원은 댓글조작 문제가 불거진 초반에는 드루킹과의 관계가 상호호적인 게 아니라 김씨 측에서의 일방적인 접근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드루킹에게) 의례적으로 감사의 인사를 보낸 적은 있지만 수백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건 사실이 아니고, 김씨가 일방적으로 보내온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부분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김 의원은 읽어보지도 않았다”며 “김 의원은 의례적으로 감사 인사를 한 것”이라고 거듭했다.

그러나 김 의원과 드루킹의 관계가 상호적으로 보일 수 있는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김 의원은 태세를 바꿨다.

김 의원은 16일 해명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을 치르고 나서 드루킹 그분이 찾아와서 인사추천을 하고 싶다고 했고 (저는) 문재인 정부는 열린 인사추천시스템을 갖고 있으니 좋은 분 있으면 전달하겠다고 했다”며 상호 관계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이 서울청장 역시 지난 19일 김 의원이 드루킹에게 10개의 기사 인터넷주소(URL)를 보낸 것으로 확인한 후 “당시 저로서는 정확하게 관련 사실을 숙지하지 못했다. 간단히 이후 URL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사과했다

이에 더해 김 의원은 앞선 기자회견들에서는 금전 거래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지난 21일 일부 보도가 나간 뒤에야 “보좌관이 5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사실을 해명하기도 했다.

입장을 번복하는 것은 구속 상태에서 진술을 이어가고 있는 김씨도 마찬가지다.

김씨는 초반 경찰조사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테스트 하기 위해 보수진영에서 정부 비판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것처럼 보이도록 한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재인 정부를 비방할 의도는 없었으며, 특정 배후세력의 조직적인 지시를 받거나 후원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씨는 지난 20일 진술을 바꾸며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경제민주화가 진전되는 모습을 볼 수 없어 불만이 생겼고, 일본 오사카 총영사 추천을 거절한 김 의원에게 불만이 있어 우발적으로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일각에서는 김씨의 이 같은 태도가 댓글 사태의 초점이 김 의원 쪽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읽고 이를 이용해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는 의도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진술 번복 자체가 신뢰성을 떨어뜨려 당사자에게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고 진술이 중요해진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는 설명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진술의 신뢰성을 의심 받는 만큼 말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다지 말 증거는 손에 잡히지 않아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겠지만, 하나하나 밝혀질 때마다 믿음을 주지 못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현호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으면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지금 서로 말장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며 “향후 수사에 따라 드루킹은 협박죄, 김 의원은 선거법 위반 여부에서 사실이 어떻게 확인되느냐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진술이 오라가라하는 상황에서 경찰은 양 측의 금전거래 경위, 자금의 출처와 성격 등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실증적 정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댓글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컴퓨터등장해업무방해)로 박도(31·필명 서유기)씨를 지난 20일 구속했다. 주범 김씨 등 3명은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3월께 김 의원 측 보좌관에게 메시지 텔레그램을 통해 500만원 금전 관계를 언급하며 협박 문자를 보낸 사실을 확인, 수사를 자구 쪽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드루킹의 500만원 관련 시그널 메시지를 받은 김 의원은 “황당하다. 확인해보겠다”, “(보좌관으로부터) 사표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두 번의 답장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뉴스

경찰이 공개한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 보낸 기사링크 10건

2016년 11월~2018년 3월 텔레그램(메신저의 일종)

- 2016.11.25. jbc 썰전 문재인 전 대표 인터뷰
- 2016.11.28. 한 아이들의 ‘찍덕’이 촬영한 문재인과 표창원의 사진은 매우 감각적이다(사진)
- 2017.1.18. 빈기문 봉하행에 친노 불리한 사진..“정치적 이용” 비판
- 2017.3.8. ‘주부 62% 비호감’ 문재인 여성표심 ‘올인’..“내가 제일 잘 생겼는데”
- 2017.3.13. 문재인 측, ‘차마실’ 유모차 경찰에 수사요청..“감격대응”
- 2017.4.13. [대선후보 합동토론회] 문재인 10분내 제압한다면 홍준표, 문에 밀려
- 2017.4.29. 문 “정부가 일자리 창출” 안 “중가벤처가 만들어야”
- 2017.5.2. 막판 실수 댄 차명상..문 캠프 ‘SNS댄스 자체령’
- 2017.6.11. 부총리교육부장관 김상곤..법무 안경환, 국방 송영무(중환)
- 2017.10.2. 굶은 건 도려내야 새살 돌아..美도 우리가 운전석 앉길 원해

김경수 의원
공보 말을 때 후보에 관한 좋은 기사 제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기사를 보낸 적은 꽤 많았다
-4월16일 기자회견

김도(48·네임 드루킹)씨
댓글 순위 선정 업무 방해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구속기소

자료: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2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김경수 의원은 2016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도(네임 드루킹)씨에게 메시지 ‘텔레그램’을 통해 14개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 중 10건은 기사링크(URL)이다.

2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김경수 의원은 2016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도(네임 드루킹)씨에게 메시지 ‘텔레그램’을 통해 14개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 중 10건은 기사링크(URL)이다.

2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김경수 의원은 2016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도(네임 드루킹)씨에게 메시지 ‘텔레그램’을 통해 14개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 중 10건은 기사링크(URL)이다.

드루킹 실체는..정치 평론가? 주식 전문가? 출판사 대표?



문재인 정부 비판성 댓글의 추천 수를 높여 여론을 조작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자 파워블로거인 드루킹 김도(빨간원)가 지난 2016년 10월 3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린 ‘10·4 남북 정상 선언 9주년 행사’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의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무더기 추천하는 방식으로 여론 조작에 가담한 민주당원들이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이들 중 1명이 진보 성향의 파워 블로거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경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포털사이트 등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성격의 댓글을 추천해 여론을 조작하려 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된 김도(48)씨는

로 제목이 한차례 변경됐다 2009년 드루킹의 자료창고로 이름이 다시 바뀌었다.

이 블로그 소개란에는 좋아하는 것에 ‘원칙과 상식’, 싫어하는 것으로 ‘친일파, 이승만과 그 후예들 독사의 자식들’이 적혀있다. 취미로는 ‘불교철학, 자미두수(紫微斗數)’가 언급됐다.

또 자신을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매니저’로 소개하고 있다. 경공모는 김씨가 2014년 소액

주주 운동을 목표로 연 인터넷 카페다. 회원 수는 2500여명이다. 김씨는 인지도를 바탕으로 2010년 ‘드루킹의 차트혁명’이라는 주식 전문서를 펴내기도 했다. 주가 흐름에 관한 기술적 분석 기법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지난해에는 블로그와 같은 제목으로 팟캐스트,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다

2009년과 2010년 시사·인문·경제 분야 ‘파워블로그’로 선정됐다. 김씨는 2010년 초반부터 한 커뮤니티에서 ‘뽀띠’라는 필명으로 경제 관련 글을 써오다 필명을 드루킹으로 바꾸고 본격 블로그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2009년 시작된 이 블로그는 2006년 ‘뽀띠의 자료창고’

댓글 조작 민주당원, 온라인서 유명하던 진보 논객 ‘드루킹의 자료창고’ 방문 1000만 육박 파워블로거 팟캐스트, 유튜브 채널 운영...출판사 대표 직할까지

2009년과 2010년 시사·인문·경제 분야 ‘파워블로그’로 선정됐다. 김씨는 2010년 초반부터 한 커뮤니티에서 ‘뽀띠’라는 필명으로 경제 관련 글을 써오다 필명을 드루킹으로 바꾸고 본격 블로그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2009년 시작된 이 블로그는 2006년 ‘뽀띠의 자료창고’

2009년과 2010년 시사·인문·경제 분야 ‘파워블로그’로 선정됐다. 김씨는 2010년 초반부터 한 커뮤니티에서 ‘뽀띠’라는 필명으로 경제 관련 글을 써오다 필명을 드루킹으로 바꾸고 본격 블로그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2009년 시작된 이 블로그는 2006년 ‘뽀띠의 자료창고’

팟캐스트는 “경제민주화운동, 공 동체를 통한 경제적 자유의 달성을 추구하는 드루킹의 자료창고”라고 소개하고 있다.

현재 그가 운영했던 블로그와 유튜브에서는 글과 동영상 확인 할 수 없는 상태다.

하지만 각종 커뮤니티에서 공유 됐던 글들을 보면 김씨는 지난 2016년 ‘탄핵을 늦추면 박근혜는 도망간다-탈주의 공범은 MBI다’, 지난해에는 문재인인의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등의 글을 블로그에 올리며 친여권 성향을 나타냈다.

현재 유일하게 팟캐스트에 남겨져 있는 방송의 제목 역시 ‘이니(문 대통령 애칭) 하고싶은거 다 해’이다. 지난해 7월께 올라온 이 방송은 문재인 대통령 관련 뉴스를 주로 소개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우모(32)씨, 양모(35)씨 등 민주당원 3명은 지난 1월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아 이스하기 단일팀 구성과 관련된 기사에 정부 비판 댓글이 게재되면 ‘공감’ 혹은 ‘비공감’을 대량 클릭, 특정 댓글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직접 정부 비판 댓글을 올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 “황당하다. 확인해보겠다”, “(보좌관으로부터) 사표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두 번의 답장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뉴스

이들은 직접 정부 비판 댓글을 올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 “황당하다. 확인해보겠다”, “(보좌관으로부터) 사표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두 번의 답장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뉴스

뉴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